

축구 국대 A매치 입장권 매진 임박

한국, 내달 1일 전주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경기... 월드컵 출전식도 병행 전주시, 경기 흥행 통해 월드컵 붐 조성 기여 기대... 경기 당일 셔틀버스 무료 운행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경기와 지방도시 최초의 월드컵 출전식 유치를 이룬 전주가 축구도시 명성을 이어간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2등석과 3등석을 제외한 좌석이 매진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전식을 겸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축구 A매치 경기는 오는 6월 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기는 지난 2013년 크로

아티아와의 A매치 경기 이후 전주에서 5년 만에 열리는 경기로, 시는 이번 경기가 지방도시 최초로 축구국가대표팀 출전식도 함께 진행되는 등 시민과 축구팬의 관심이 높아 현장관객을 제외한 티켓이 경기 2~3일전에는 모두 매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입장권은 온라인(인터파크)과 오프라인(KEB 하나은행 전국 지점, 전라북도 축구협회 관매처)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주는 프로축구 K리그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FC가 연구지를 두고 있는 도시로, 지난 2002

FIFA 월드컵과 지난해 2017 FIFA U-20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러내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번 A매치 흥행을 통해 다가오는 러시아월드컵 붐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A매치 관람을 위해 많은 시민과 축구팬들이 일시에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몰려들 것에 대비해 관중 불편해소와 경기장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가전 당일에는 전주종합경기장과 화산체육관,

전북도청, 전주공고 등 4곳에서 호남 제일문까지 총 35대의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축구도시 전주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국제경기 관람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일부좌석을 제외한 입장권 매진사례를 보니 친선경기의 관심과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출전식 경기 상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18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에서는 3위를 기록해 본선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는 독립 후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팀이다. /기동취재반

검찰총장에 ‘반기’ 배경은?

강원랜드 수사단,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이해해달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지휘권을 두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2월 수사단을 발족하면서 상부에 수사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르게 문 총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

가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역시 현 총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설명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불만 표시를 두고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영장 청구 등에 대해 총장에게 불만 제기를 한 것은 권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은 “권 의원이 분명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수사단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고 문

전주시, 조리과정 공개 ‘안심음식점’ 확대

전주시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방 내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심음식점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주방 공개용 CCTV를 설치하거나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중 식품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20개소를 안심음식점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안심음식점은 주방의 조리과정과 남은 음식 처리과정을 손님이 객석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과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현재 전주지역에는 총 43개소의 안심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안심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면 전

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의 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시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우 심사 항목은 △주방공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또는 주방이 공개된 구조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주방 내부 청결관리 △식재료 및 개인위생관리 등으로, 모든 항목들이 충족해야 안심음식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경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안심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전주음식 홈페이지(food.jonju.go.kr)에 영업장 및 메뉴 사진을 게재해 홍보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지진이더 빨리 피하자”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된 16일 오후 전주시 청사에서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수사단 “수사에 집중”... 당분간 입장표명 없을 듯 “권성동, 야당이라 공개 불만 표시했을 가능성도”

된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피의자 신분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온 ‘억울함’을 소명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알렸다”며 “문 총장은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의원의 ‘의압 의혹’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지시로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날 때까지 영장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이다. 안 검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의원의 신병처리 및 수사와 관련해 (강원랜드 수사단의) 참고

총장에 대한 불만을 표기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권 의원은 야당 의원이기도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야당 의원이라서’라고만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 총장이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문 총장을 겨냥한 의도에 대해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만 밝혔다. 양 단장은 현재 일체의 언론 접촉을 피하고 당분간 별도의 입장 표명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양 단장과 수사단이 16일 아침회의 때도 오는 18일 전문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대비하는 등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 /뉴스

전주시, 재난대응 합동 토론훈련 실시

전주시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소집훈련 △시 청사 불시 화재 대피 훈련 △재난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대규모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비를 위한 합동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의 중점평가훈련으로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재난상황으로 가정하여 이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실시한다. 16일 오전 10시에 실시된 합동 토론 훈련에는 전주시 13개 협업부서 및 덕진소방서, 덕진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총 27명이 참여하여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의 주재로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시간 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하수관 공사 중 담 붕괴... 인부 1명 사망

16일 오후 1시42분께 전북 전주시 진북동 한 길가에서 담이 무너져 인부 1명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하수관 정비 작업을 하던 A(58)씨가 매몰돼 숨을 거뒀다. A씨는 당시 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가스배관 등 안전 문제가 있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